

스택스 립, ‘파리의 심판’을 넘어… “Futuro Antico”

〈오래된 미래〉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6

“푸투로 안티코(Futuro Antico).”

이탈리아어로 ‘오래된 미래’라는 뜻이다. 1976년, 50년 전 와인업계 대이변이었던 ‘파리의 심판’을 통해 이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 때가 됐다. 명성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다.

나파밸리의 미래를 말하며 이탈리아어가 튀어나온 것도, 첫 이미지로 포도밭을 돌아다니는 UV 로봇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티노리에서 스택스 립을 비롯해 미국 와이너리를 총괄하고 있는 후안 무뇨스오카(Juan Munoz-Oca·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리의 심판 50년 이 지난 지금은 변화와 정체성 사이의 균형감에 대해 “이탈리아어로 ‘푸투로 안티코(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변화는 혁신적인 무엇보다은 근본적인 것, 즉 포도 재배”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스택스 립의 모든 와인은 보우 포도밭의 와인으로만 양조한다”고 강조했다.



안티노리에서 스택스 립을 비롯해 미국 와이너리를 총괄하고 있는 후안 무뇨스오카(Juan Munoz-Oca·사진)가 스택스 립의 양조 철학과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안티노리는 결국 농사짓는 가문”이라며 “모든 원칙은 좋은 포도를 길러야 아름다운 와인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1970년에 설립된 스택스 립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우승을 하면서다. 설립 후 6년 만인 신생 와이너리가 3년 차에 만든 ‘S.L.V. 카베르네 소비뇽’ 1973 빈티지가 보르도 특급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을 모두 제쳤다. 당시 우승했던 S.L.V. 카베르네 소비뇽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이자 ‘미국을 만든



(왼쪽부터)스택스 립 아베타 소비뇽 블랑 2024, 스택스 립 카리아 샤르도네 2024, 스택스 립 아르테미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 스택스 립 페이 카베르네 소비뇽 2020, 스택스 립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3.

/안상미 기자

101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린 스택스 립이 지난 2023년 이탈리아 와인 명가인 안티노리에 인수됐다.

안티노리는 이후 3년에 걸쳐 다른 재배자로부터 포도를 사들이는 것을 단계적으로 끊었다. 기존에 안티노리가 나파밸리에 가지고 있던 포도밭을 활용한 것은 물론 스택스 립 와인을 위해 추가 매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후안은 “와이너리를 경영하는데 있어 1년이나 10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바라본다”며 “30년 쓰고 갈아엎는 밭이 아니라 매입하면서도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포도

밭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오래된 한옥을 고수해서 대들보와 마당같은 집의 결은 그대로 두더라도 난방과 단열은 최신으로 바꾸는 것처럼 최신 기술은 계속해서 적용 중이다. 올해부터 스택스 립의 포도밭에는 밤마다 U자 모양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수 세기 동안 황을 뿌려 막아 온 곰팡이를 이제는 캐노피 속으로 비추는 자외선이 잡는다.

박물관의 역사적 레드 와인을 뒤로 미루고 화이트 와인을 먼저 주인공으로 모셔본다.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변화의 시

작도 화이트 와인에도 먼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다.

그는 “클래식 나파밸리의 스타일로 화이트와 레드를 불문하고 자연 산도를 살려 더 싼맛하고, 우아하게 양조한다”고 설명했다.

‘스택스 립 아베타 소비뇽 블랑 2024’은 나파밸리의 열대과일보다는 라임과 레몬 분위기다. 생동감 있는 산도와 함께 서늘했던 2024년의 기후를 반영해 알코올은 12도 안팎에 불과하다.

‘스택스 립 카리아 샤르도네 2024’은 양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최소 80%는 젖산발효를 하던 공식을 2023년부터 내려놓았다. 와인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에 맡겼다. 그렇게 2024년은 절반 정도만 젖산발효를 거쳤다. 오크는 절제됐고, 산미와 질감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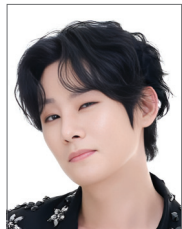
그레도 파리의 심판 50주년 빈티지인 ‘스택스 립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3’을 빼놓을 순 없다. 그건 후안의 언급을 그대로 빌려 “S.L.V.를 마시는 건 역사를 마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2023년은 지금까지 ‘세기의 빈티지’라 불린 2021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지만 다크 초콜릿과 커피, 단단한 탄닌으로 천천히 열리며 보이는 잠재력은 ‘벨벳장갑속강철주먹’이란 별명답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10월 노래교실 애창곡 1위 ‘눈뜨고 있는 한’

노래교실 강사들 투표 선정



가수 강문경(사진)의 ‘눈뜨고 있는 한’이 ‘노래교실 애창곡 50선’ 1위에 올랐다.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배웠으며, 고등학생 때는 판소리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열었다. 2003년 전국 판소리 전통고수대회 학생부 대상, 2004년 박동진 전국 판소리 고법 대회 일반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2014년 ‘아버지의 강’으로 데뷔했다.

가수 서주경 DD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약 7년간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국악을 바탕으로 한 발성을 대중음악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계기는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2-라스트 찬스’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2024년 MBN ‘현역가왕2’에서는 최종 7위에 올라 2025 한일가왕전에 출전할 국가대표 TOP7에 포함됐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눈뜨고 있는 한’은 노래교실 강사들의 투표로 선정됐다. 강문경은 “노래교실 강사들이 직접 뽑아 준 상이라 더욱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중 곁에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월 노래교실 애창곡〉

순위	곡명	가수
1	눈뜨고 있는 한	강문경
2	역마차 싸움	윤수현
3	나는 반딧불	황가람
4	십년만	양지은
5	나비아	전유진
6	옛날 애인	전부성
7	다시는	나훈아
8	아이 좋아	린
9	딱 한번의 실수	임현정
10	바람의 소원	채희
11	이정표	장윤정
12	고향에서 왔어요	김현
13	하늘에	장윤정
14	나 이라는 동안	조항조
15	순정	강문경
16	빈 술잔	정의송
17	안양역 첫차	박혜신
18	가시 여인아	태진아
19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솔지
20	인간시장	진성
21	목포행 완행열차	장윤정
22	금수저	김용빈
23	고맙소	조항조
24	인생열차	나태주
25	찢이야	영탁

/한국가요강사협회

순위	곡명	가수
26	참회	최진희
27	내가 왔어요	우설민
28	연정	배금성
29	미운 사랑	진미령
30	연모	박우철
31	천년지기	유진표
32	니나노	윤수현
33	돌아보지 마세요	임영웅
34	안오네	주현미
35	내가 이러려고	최영철
36	님바라기	윤천금
37	사랑의 흔적	최시라
38	사랑이 비를 맞아요	배금성
39	못된 사랑	조항조
40	평행선	문희옥
41	6학년 6반	유진표
42	인생의 답	김연자
43	왕대표	정정아
44	무정세월	이박사
45	인생이란	윤시내
46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김연숙
47	폭 빠졌나봐	현숙
48	이런 날 기다렸나요	김희재
49	간월도	소명
50	역대급 여자	김영임

신작 영화·명작 재개봉작 등 구성

롯데시네마가 11월 단독 개봉 콘텐츠인 ‘롯데시픽’ 라인업을 공개했다. 신작 영화와 명작 재개봉작을 비롯해 세로형 스포츠 영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장편영화까지 선보이며 극장 콘텐츠를 다 변화한다.

먼저 4일에는 바다 호러 영화 ‘변이’와 애니메이션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발푸르그스의 회전’이 개봉한다. ‘변이’는 과로와 번아웃을 기괴한 신체 변화와 결합한 작품으로, 제56회 시체스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발푸르그스의 회전’은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시리즈의 네 번째 극장판으로, 기존 세계관을 잇는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11일에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가 개봉 20주년을 맞아 재개봉한다. 커스틴 던스트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프랑스 궁정을 배경으로 화려한 의상과 현대적인 음악을 결합한 연출이 특징이다.

18일에는 세로형 스포츠 사극 ‘광안: 세자의 여자’와 애니메이션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가 관객을 만난다. 성준과 추, 문지훈(스윙스)이 출연하는 ‘광안: 세자의 여자’는 세자와 공녀를 중심으로 한 궁중 로맨스다. 롯데시네마의 두번째 세



11월 단독 개봉 콘텐츠 롯데시픽 라인업.

/롯데컬처웍스

로형 영화로, 세로 화면에 맞춘 구도를 통해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강조했다.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는 두 주인공의 청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기존 작품을 다시 극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포 영화 ‘아더 미미’도 단독 개봉한다. 어린 소녀 벨라가 집에서 엄마와 닮은 정체불명의 존재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제94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제시카 찰스테인이 주연을 맡았다.

25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제작 전반에 활용한 장편영화 ‘리파델’이 개봉한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전쟁용 안드로이드가 신앙과 인간성, 구원의 의미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SF 액션 작품이다. 영상과 배경, 대사 등 제작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美 ‘핵 양보 안 하면 공습’ 최후통첩… 이란 “재해제가 먼저”
▲ 美, 이란 일주일간 대규모 공습 검토… 카타르 막판 중재

▲ 美 전 CIA “기술경쟁 위해 美 기업 경제 스파이 금지 해제해야”
▲ ‘부재자 개표’ 남은 이스라엘 총선… 네타냐후 과반 확보 실패



▲ 라오민 중 재정부부장, IMF 부총재로 지명… 12월 취임 예정
▲ 日 방위성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추정”… “피해 없어”